

# “17년만에 홈 무패 우승”...광주 FC 시즌 마지막 도전

이번주 일요일 전남과 폐막전...광주월드컵 경기장 시대 마무리  
'유종의 미' 위해 펠리페 등 최정예 멤버 출전...경기 뒤 우승 시상식



‘우승팀’ 광주FC가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광주는 오는 11월 3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남드래곤즈와 2019 K리그2 35라운드 홈 폐막전을 치른다.

많은 의미가 담긴 홈폐막전이다. 광주는 앞선 33라운드 안양전 승리를 통해 우승을 확정했다. K리그 1 무대로 돌아가게 된 광주는 이날 경기가 끝난 뒤 우승 시상식을 갖고 ‘챔피언’으로 우뚝 섰다.

거침없던 광주의 2019시즌이었다. 광주는 올 시즌 K리그2 최다무패(19경기), 창단 첫 6연승, 팀 최다승점(현재 21승·73점) 등 숱한 기록들을 경신하며 우승이라는 자리까지 이르렀다.

우승은 확정했지만 광주의 질주가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 ‘홈 무패 우승’이라는 목표가 남아 있다.

광주는 올 시즌 12승 5무(승률 85.3%)로 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이번 홈 폐막전에서도 패하지 않는다면 시민구단 최초이자 K리그 통산 17년 만에 홈 무패 우승 주인공이 탄생하게 된다. 이전 기록은 2002년 성남일화천마가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전남전은 강등과 승격의 많은 순간이 담긴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의 마지막 홈경기이기도 하다.

광주가 2020시즌을 축구전용구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홈폐막전은 광주월드컵경기장 고별전이 된다.

광주는 지난 9년간 170경기, 170개의 희로애락을 남긴 구장에서 우승 세리머니를 펼치며 찬란하게 광주월드컵경기장 시대를 마무리하게 된다.

승리를 향한 자신감은 넘친다.

앞선 수원FC와의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한 광주는 김정환, 엄원상, 임민혁 등 젊은 선수들의 맹활약에 힘입어 3-0 승리를 만들어냈다. 김정환이 멀티골로 주목을 받았고, 엄원상도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내년 시즌의 기대를 키웠다.

여기에 최준혁, 여봉훈, 아슬마토프 등 주전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끌어올렸고, 부상으로 교체된 펠리페의 컨디션도 양호하다.

광주는 홈팬들에게 최고의 승리를 선물하기 위해 최정예 멤버로 전남과 상대할 예정이다.

광주는 전남과 10승 6무 5패의 상대전적을 기록하고 있다. 올 시즌도 2승 1무 무패로 우위를 점했다. 또 전남은 앞선 부산원정 패배로 승점 42점(7위)이 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좌절된 상황이다.

하지만 시즌 막바지 가장 무서운 기세를 보였던 팀이 바로 전남이다.

전남은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를 기록하는 등 막판 순위 싸움의 다크호스로 주목을 받았다.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전남의 총력전에서 특히 김영욱, 한진희, 이우현 등 핵심자들의 활약을 주의해야 한다.

광주는 홈 폐막전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남문광장에서 KT&G 상상유니브와 함께하는 플라마켓을 통해 선수단 애장품을 판매, 소방관들의 방화복 및 건조기 기증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또 남문출입구 MD샵에서 1만원 이상 구매 시 2019사인볼을 무료 증정하고 K리그2 우승 기념 티, 선수단 전 구성원 친필사인유니폼, 기성용 친필사인볼, 차량용 공기정정기 등 다양한 경품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11월 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남드래곤즈와 홈폐막전을 치른다. 광주월드컵경기장 고별전이기도 한 이번 경기가 끝난 뒤 광주는 2019 K리그2 우승 시상식을 갖는다. 사진은 부천과의 15라운드 경기에서 이요뜸의 골이 나온 뒤 기뻐하는 광주 선수들. <광주FC 제공>

## 김정환·엄원상 ‘34R 베스트 11’

광주FC 김정환과 엄원상이 34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9일 K리그2 34라운드 5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김정환(FW)과 엄원상(MF)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정환은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14분

부상으로 빠진 펠리페를 대신해 투입, 0-0으로 맞선 전남 추가 시간에 선제골을 기록하는 등 멀티골을 장식했다. 엄원상도 후반 3분 만에 득점을 올리며 팀의 3-0 승리에 기여했다.

광주는 이 승리와 함께 5연승을 달리며 21승 10무 3패(승점 73)를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정환

엄원상

## 벤투 감독 “한·일전서 새로운 선수 실험”

E-1 챔피언십 키오프 기자회견



한일전을 앞둔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벤투 감독은 3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키오프 기자회견에서 “한일전이 갖는 의미에 대해 잘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년마다 열리는 E-1 챔피언십은 국제축구연맹(FIFA)·아시아축구연맹(AFC) 주관 대회다

아니고 A매치 데이에 열리는 것도 아니어서 해외 파 선수를 차출할 수 없다. 대회의 무게감이 떨어지지만, 한일전만큼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이번 대회는 반일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열리기 때문에 한일전은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벤투 감독은 “한일전이 그 어느 경기보다 치열한 라이벌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첫 두 경기를 잘 치르고 마지막 경기까지 잘 준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고 힘줘 말했다.

국내파 선수만으로 나서야 하는 이번 대회는 벤투 감독에게 그동안 써 보지 않은 선수들을 실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테스트 무대다.

벤투 감독은 “이번 대회를 새로운 선수를 관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대표팀에 새로 선발되는 선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다운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1 챔피언십은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과 구덕운동장에서 열린다. 남자부는 한국, 일본과 중국, 홍콩이 참가한다.

2003년 시작된 이 대회에서 한국은 통산 4회 우승한 최다 우승국이다.

/연합뉴스

## 왕조의 탄생이나... 챔프 재등극이나



워싱턴 내셔널스의 후안 소토(오른쪽)와 아담 이튼이 30일 2019 미국프로야구(MLB) 월드시리즈 6차전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에서 5회초 각각 솔로홈런을 친 뒤 함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스턴-워싱턴 오늘 월드시리즈 7차전... 워싱턴, 창단 첫 우승 도전

미국프로야구(MLB) 워싱턴 내셔널스가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를 최종 7차전으로 몰고 갔다.

워싱턴은 3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메이드파크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홈런 3방으로 휴스턴 마운드를 무너뜨려 7-2로 이겼다.

1~2차전에서 이긴 뒤 안방에서 3~5차전을 모두 패해 벼랑 끝에 몰렸던 워싱턴은 기자회견에서 휴스턴과 마지막 외야투수 대결을 벌인다.

양 팀의 7차전은 31일 오전 9시 8분 같은 장소에

서 열린다. 워싱턴은 창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WS 정상에 오른다. 휴스턴은 2017년 이래 2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WS 제패에 도전한다.

전날까지 월드시리즈 통산 6경기에 선발 등판해 승리 없이 5패, 평균자책점 5.73으로 부진한 저스틴 벨런더(휴스턴)가 홈런 2방에 역전을 허용했다.

워싱턴의 3번 타자 앤서니 렌던은 4타수 3안타를 치고 5타점을 쓸어 담아 승리의 앞등 공신이 됐다.

워싱턴이 1회 1사 2루에서 타진 렌던의 중전 적시

타로 선취점을 뽑자 휴스턴이 곧바로 전세를 뒤집었다.

워싱턴은 9회 초 2사 1, 2루에서 렌던의 짝살이 우중간 2루타가 나오자 승기를 굳혔다.

2차전에서처럼 스트라스버그가 웃었고, 벨런더는 고개를 숙였다.

스트라스버그는 8%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슈아내며 2실점의 눈부신 역투로 팀을 구했다. 그는 2차전에서 6이닝 2실점 호투로 승리를 따냈다.

2차전에서 6이닝 4실점 한 벨런더는 이번에도 5이닝 3실점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

/연합뉴스

## KPGA 가장 어려웠던 홀은 남서울 골프장 16번홀

평균 4.73타...쉬운 곳은 인천 드림파크

2019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에서 가장 어려웠던 홀은 남서울 컨트리클럽의 16번 홀로 나타났다.

30일 KPGA에 따르면 올 시즌 대회가 열렸던 코스 중의 홀별 난도를 분석한 결과 제38회 GS칼텍스 매경오픈이 열렸던 경기도 성남시의 남서울 골프장 16번 홀(파4·533야드)의 평균 타수가 4.73타로 집계됐다. 이 홀에서는 4명 중 1명만이 파 세 이브를 했고 3명이 보기를 적어낸 셈이다.

대회 기간 이 홀에서 나온 버디는 단 11개에 불과했고 186개의 보기, 35개의 더블보기가 나왔다.

트리플보기 이상도 23개나 쏟아졌고, 그린 적중률은 15.68%에 그쳤다.

연장 접전 끝에 매경오픈에서 우승한 이태희(35)는 최종라운드 16번 홀에서 보기를 했지만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파를 지켰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홀은 코오롱 제2회 한국오픈이 열린 충남 천안시 우정힐스컨트리클럽의 11번 홀(파4·501야드)로 평균 4.49타가 기록됐다.

가장 쉬웠던 홀은 제2회 휴온스 엘라비에 셀러브리티 프로암이 개최된 인천의 드림파크컨트리클럽 파크 코스 12번 홀(파5·552야드)이었다.

평균 4.48타가 작성된 이 홀에서는 대회 기간 14개와 이글과 197개의 버디가 나왔다. /연합뉴스